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토론회(2)**



2013년 9월 12일(목) 오후 2시~4시 30분
감리교신학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소예배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

목차

진행: 심광섭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인사 이정구 신부
(신앙과직제위원회 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총장)

기도 말은이

- 토론**
- 오경에 비추어 본 'Sola' 정신
| 발표: 이영재 목사(화평교회)
| 논평: 김근주 목사(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연구위원)
 - Sola주의로서의 기독교 근본주의
: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모색
| 발표: 최대광 목사(정동제일교회)
| 논평: 이형기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전체토론 다함께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포럼총회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포럼을 시작합니다.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대응에 나서되, 시급한 것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 대책이 수립하여야 합니다.

포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 16세기 종교개혁의 배경과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에 대한 평가
 - 16세기 시대적 교회적 상황과 20세기 시대적 교회적 상황의 비교를 통해서 본, 21세기 개혁을 위한 대안적 신학 패러다임 모색
 - 다섯 SOLA (Scriptura, Gratia, Christus, Fide, Deo Gloria) 원칙(주의)에 대한 재평가
- 2 개혁의 과제로서의 교회론적 검토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 교단주의, 교회무한성장주의 등)
- 3 개혁과 일치 의 과제로서의 한국교회 정치와 직제에 대한 검토와 대안 모색
- 4 개혁의 과제로서 한국교회의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정책
(*구원론 동시 거론 가능)
- 5 개혁의 과제로서 한국교회의 제례문화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
- 6 개혁의 과제로서 한국교회의 공적 책임수행에 대한 대안 모색
- 7 개혁의 과제로서 교회교육에 대한 대안 모색
- 8 개혁의 과제로서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대안 모색
- 9 개혁의 과제로서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에 대한 대안 모색
- 10 개혁의 과제로서 한국교회의 재정 개혁

오경에 비추어 본 'SOLA' 정신

이영재(목사, 전주화평교회)

들어가는 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되는 시점이다. 짧은 시간에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에 대한 주목을 입증하듯 WCC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안팎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종교개혁의 주요 정신이었던 'Sola'에 대한 조명은 의미 있는 일이다. 지역 교회 어디서나 'Sola(오직)', 즉 개혁자들의 목표가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혁 정신인 'Sola'가 개혁 당시의 본래적 의미와 방향을 잃고 '-ism'처럼 자리 잡았다는 염려도 동시에 들려온다.

종교개혁 때부터 개혁교회가 표방해온 5개의 명제는 종교개혁 직후, 마치 성벽을 이루는 벽돌처럼 강력한 명제로 자리 잡으며 정통주의를 만들어 냈다. 이후 여러 사조를 겪으며 문제점들은 정리되고 계승되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취해졌다.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체로 서구의 기독교는 5개의 목표가 '-ism'으로 진전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는 미국에서 이식된 근본주의적 풍토와 교묘한 역학관계를 이룬 Sola가 '-ism'이 되었다는 염려와 함께 이러한 경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급기야 '솔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솔라주의'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솔라 정신의 왜곡을 비판하는 이들은 현재 한국교회가 표방하는 'Sola(오직)'는 개혁자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솔라정신’은 종교개혁 때부터 개혁교회가 표방해온 5개의 솔라, 즉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을 모든 사고와 판단과 행동의 원리로 삼음을 말한다. 이것으로 개혁자들은 당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개혁교회의 전통을 통해 이어온 5개의 모표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이 명제가 또 다른 ‘올법’으로 교회에 상처를 주기도 했음은 교회사의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다양한 기독교 전통과 교류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절대적 기준이었던 성서와 교회의 오랜 전통들에 대하여 대화하였고, 개혁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성서의 절대권위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 의해 계승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교회나 성공회의 경우, 로마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전통과 말씀을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Sola scriptura의 단어적 의미에 선뜻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경험을 갖지 않았던 아프리카의 콥트교회나 에티오피아 교회에게도 솔라는 매우 낮은 표현일 것이다. 한국의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가 오직/솔라를 강하게 표방하지만 다른 전통의 자매형제들에게는 낯설은 풍경이 될 수도 있다.

5개의 솔라 모표는 개혁교회를 계속 개혁하려는 의지와 실천에 잇닿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개혁교회는 5개의 모표를 ‘오직 교회만으로’(Sola Ecclesia)라는 표어로 바꾸어 놓았다는 느낌마저 준다. 5개의 솔라 표어를 근거로 교회 안에만 (sola)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온 창조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성령의 복음 사역을 개혁교회의 좁은 울타리 안에 제한하는 교회주의자들에 의해 개혁교회의 자랑스러운 5개의 모표는 ‘솔라주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교회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교권을 확립하고 행사하려고 한다. 더구나 아시아가 놓여있는 종교다원의 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할 것인지를 연구하기 보다는 선교를 위한 수많은 대화와 모색들을 ‘솔라주의’에 위배된다는 명분으로 차단하고 정죄하려고 한다. 종교다원의 사회에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신학이 필요함에도, ‘솔라주의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신학적 연구마저도 종교혼합주의 내지는 종교다원주의로 정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은 WCC가 마치 종교다원주의를 결의한 단체인 양 매도하면서 ‘솔라주의’에 더욱 강하게 매달리고 있다.

종교개혁 5개 모표의 원래적 의미는 로마교황의 교권주의와 로마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교회주의를 개혁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500년을 조금 앞둔 요즘 그 의미가 굴절되어 개혁교회 안의 교회주의자들과 교권주의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솔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종교개혁 정신의 본질을 되짚어 보는 것은 교회의 본래의 의미와 방향을 확인하여 오

늘도 끊임없이 개혁하는 길에 서게 하는 성찰의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5개 솔라 중에 특별히 ‘솔라 피데’란 주제에 집중하면서 이 주제를 구약성서 특히 오경에 비추어 검토하려고 한다. ‘솔라 피데’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의인론(義認論, 또는 칭의론稱義論, just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의인론은 성화론(聖化論, sanctification)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본인은 오경에 나타난 의인론부터 짚어 본 다음에 성화론을 더듬어 볼 것이다. 오경은 ‘솔라 피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1. 신명기의 솔라정신: 의인론

신명기는 ‘솔라 그라치아’를 역설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공로가 없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신9:5).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첫째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 악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었다. 가나안 점령은 이스라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써만 이루어진 일이었다(sola gratia).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신9:1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신9:6).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늘 거역하다가 여호와와 진노를 샀다(신9:7).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여호와를 거역하였다(신1:26, 43; 9:23, 24; 31:27, <마라>).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 이스라엘의 심령이 강퍹해지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둔갑하였다(출6:9). 세상의 권력을 잡은 지배자들은 우상을 섬기며 완악한 마음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피억압민들의 마음조차도 마침내 완악해져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출7:3; 13:15; 신2:30). 가나안의 족속들이 모두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시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억압당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택하신 까닭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다보니 악한 히브리인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바가 있어서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출2:24; 신10:15). 문제는 히브리인들이 세상의 여느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목이 곧고 성품이 악하여져서 서로 싸우고 갈라져 분쟁하였다는 데 있었다(출2:13~14; 18:13). 악하게 변질된 히브리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교정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것은 광야에서 훈련하여 비뿔어진 성품을 바로 잡아주시려는 의도에서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을 선하게 바로 잡아야 악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이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었다(sola gratia).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였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민14:22).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모압평야에 다다른 때에도 그들의 거역하는 성품은 고쳐지지 않았다(민20:2). 심지어 지도자 모세마저도 가데스 트리바에서 자기 지팡이로 두 번이나 바위를 내려쳐서 물을 내어 하나님을 거역했다(민2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까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창15:6). 믿음과 칭의의 상관관계가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그가 야훼를 믿었다’〈위헤에민 바야훼〉

‘그러자 그것이 그(야훼)에게 의롭게 여겨졌다’〈와약흐쉬베하 로 처다가〉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오직 이곳에만 언급될 뿐이다. 히브리어 〈아만〉이란 동사의 히필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동사로 사용된 곳은 창세기에서는 이곳에만 나온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유일한 조상이다.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물려받았으며 후대에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칭의를 물려받았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의식하여 로마서에서 창15:6을 인용하고 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아만〉 동사 히필형을 사용한 곳은 오로지 출14:31 한 곳 뿐이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와야아미누 바야훼〉. 이 믿음은 야훼께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파라오를 꺾으신 기적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백성이 슈르 광야에 들어서서 물 없이 사흘 길을 걸었을 때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출15:22). 모세를 향한 원망이 백성의 입에서 터져 나왔을 때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였다. 이후로 줄곧 야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사태가 민수기 20장까지 이어지며 광야유랑기를 장식한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백성과 모세를 질책하여 〈아만〉 동사 히필형을 두 차례 사용한다(민14:11; 20:12). 모세의 회고록을 담은 신명기도 가데스의 거역 사건을 두 차례 인용한다(신1:32; 9:23). 이처럼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오경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믿음만을 성경이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오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희귀하다니?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언약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칭의의 진술(6절)이 있는 직후에 아브라함은 언약의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후손들이 4대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의 언약에 동의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한다. 이에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제물 사이로 횃불이 되어 지나가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창15:17). 최초의 언약에서 야훼 자신이 언약의 당사자 겸 과일이 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지만, 그 믿음이 막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순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순수한 은총으로만 성립되었다(*sola gratia*).

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아브라함의 칭의가 구원을 위한 선택의 조건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의롭다고 인정하기 이전에 이미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셨고 하란을 떠나라고 명하셨다(창12:1). 칭의의 사건이 있기 전에 소명의 사건이 먼저 있었다. 칭의가 있기 전에 이미 땅과 자손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창13:14~18).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도 심지어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조차도 구원의 전제조건이 되지 못하였다(*sola fide*).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단에 따라 예정하신 뜻대로 택함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예정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 있었고 그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의 고난을 당했다.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맺으신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

‘솔라 피데’는 성경의 의인론을 표명한 표어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전제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진실을 토라는 보여준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만이 생명을 살린다. 은총론이 오경에서 드높이 빛나며 의인론 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펴려있고 있다(*sola gratia*).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이 주어진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의 길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끈게 하지 말라’(신10:16). 마음의 할례는 성화론의 전제다. 아무 공로도 없음을 자각한 백성은 모름지기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신8:2, 3, 16).

겸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아나브/아나>이며 교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룸>이다. <룸>은 높다 뜻이고 <아나브>는 낮다는 뜻이다. 마음을 드높이면 교만해지고 마음을 낮추면 겸손해진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민12:3, 아나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며 낮은 신분으로 살 것이다(창15:13, 아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언제나 애굽에서 노예였음을 잊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신8:14).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데에는 이스라엘의 공로는 조금도 없었으며 오로지 야훼 하나님의 거저 베풀어주시는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라가 펼치는 ‘솔라 피데’는 의인론을 바탕으로 은총론을 통하여 겸손과 청빈의 삶에 귀결된다. 교회의 성직이 권력과 부과 명예를 안겨주는 자리로 귀결되는 것은 개혁의 대상이다. ‘솔라 피데’를 모토로 내세우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교단을 정죄하는 배타주의는 종교개혁의 솔라가 아니다. ‘솔라 피데’를 외치는 사람이라면 더욱 겸손해져야 마땅하다. 사회의 낮은 자리에 처하라는 부름을 받고 인간의 죄성을 더욱 깊이 각성하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2. 토라의 솔라정신: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

고대근동의 모든 종교는 다신교(polytheism)였다. 가나안의 신은 엘(El)이었는데 수많은 ‘엘’들이 만신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만신전에는 위계가 있었으며 최고신 ‘엘 엘론’이 권력의 정점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최고신은 그 도시국가의 왕을 점지하고 주변의 다른 신들과 주종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들의 관계에서 전쟁은 필연이었으며 최고신이 다른 최고신을 복속해 나가는 치열한 전쟁은 도시의 전쟁을 대표하는 신화로 표현되었다.

창세기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엘 엘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보도한다(창14:18). 여기에도 다신론이 전제되어 있다.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은 저마다 하나씩 수호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도시국가의 왕들은 해마다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며 세력다툼을 펼쳤다(창14:1). 그들이 벌이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들의 전쟁이 신화로 발달하였다. 만신전은 도시국가의 왕들이 신봉하는 신들의 위계질서를 보여주며 신화를 창출하였다. 성경은 다신론의 종교문화를 부정하고 신화를 역사화하며 강하게 유일신론을 펼쳤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신론이라는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야훼 하나님과 독보적인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에게로 전수되었지만 야곱에 이르러서 일대 위기를 겪는다. 야곱은 만신전의 다신들을 섬기다가 나중에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친다(창35:4).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은 야훼를 섬기는 일에 태만하다가 마침내 그 이름을 망각해 버리고 만다(출6:3).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실행하신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이어서 시내광야로 인도하신다. 야훼께서 호렙산 꼭대기에 내려오신다(출19:1). 산 위에서

십계명을 베푸시며 자신이 야훼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밝히 알려 주신다(출20:2).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만신전의 다른 신들을 일체 비존재라고 선포한다. 만신전은 없는 것으로 여기라고 명령하신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출 20:3). 히브리어 원문은 <로 이흐예-러카 엘로힘 악헤림 알-파나이>이다. 밑줄친 <이흐예>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하야>의 현재형이고 <로>는 부정어이므로 ‘있지 않다’는 말이다. <악헤림>은 ‘다른/other’이란 뜻이다.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이다.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도 다시 나온다(신5:7). 거기서도 이 선포는 그대로 되풀이 된다.

‘다른’이란 형용사 <악헤림>의 반대말은 <엑하드>인데 ‘하나의/유일한’이란 뜻이다. 우리말로 ‘한/흔’에 해당한다. 이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엑하드> 여호와이시니’(신6:4). 십계명은 유일신을 선언하며 설교자 모세는 신명기 6:4에서 그 선언을 더욱 간명하고 분명하게 정리해 준다.

유일신 선언을 문명사의 눈으로 비평해 보자. 도시국가의 왕과 사제가 신전에 봉안한 만신전의 체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선언하는 주체다. 만신전의 체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고대근동의 도시국가들이 이룩하고 있는 정치체제와 문명을 부정한다는 뜻이다. 더 광범하게는 제국의 하부를 구성하는 노동과 생산의 연결고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만신전은 국가체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이다.

십계명의 유일신 선언은 고대근동의 국가들이 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변영의 시스템을 부정한다. 국가의 지배자들이 누리는 권력의 네트워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선언이다. 도시국가가 저마다 하나의 최고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다. 다신교의 문명 속에서는 도시가 도시를 겨루어 배척하는 배타주의의 문화가 성행하였다. 신들이 위계 질서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동안 영웅들이 지배하는 도시들은 군사력을 다투어서로 싸웠다. 한 도시의 신은 다른 도시의 신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면 종속관계에 있어야 했다. 봉신조약을 맺는 바탕에는 신들의 종속관계가 깔려 있었다. 다신론은 배타주의의 경향성을 품고 자라난 우상종교로서 개혁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고대국가의 만신전 체제는 노예노동의 토대 위에 구축된 도시문명을 합리화한다.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며 신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교리를 도시의 신전에서 가르친다(참조. 아리스토텔레스). 노예는 전쟁에서 포로로 획득한다. 가난하여 빚진자들이 종국에 받아들여할 숙명이 노예였다. 사회적 약자는 마땅히 노예가 된다. 그러나 야훼는 노예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를 믿는 히브리인들은 도시국가의 만신전에 봉안된 신들을 모조리 비존재(無)라고 선언하면서 노예의 해방운동에 나섰다(출21:1~6). 야훼께서는 노예들을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온전히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휴식을 안겨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출23:12). 히

브리 노예의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 야훼이시다(창2:1~3). 노예들이 해방되면 그 노예를 부리던 도시국가의 체제는 무너지기 마련이다(출1:10). 야훼는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다. 야훼의 해방운동을 본 애굽의 ‘모든 신’, 곧 애굽의 만신전이 야훼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였다. ‘애굽의 모든 신<콜-엘로헤이 미츠라임>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출12:12).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서른 한 개의 도성들을 무너뜨리고 그 왕들을 처단하였다(수12:24).

유일신 신앙은 토라의 솔라정신이다. 토라의 솔라정신은 만신전을 부정한다. 다신론의 배타주의를 부정하고 만민이 한 분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주의를 표방한다. 보편주의가 유일신 사상의 본질이다. 유일신 신앙은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부정하였다. 여러 도시국가들이 벌이는 전쟁을 부정하며 평화의 길을 제시하였다. 재물과 노동력을 취득하려고 휘두르는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모든 영웅들을 합리화하는 신화는 모조리 부정되어야 한다(창6:1~4; 10:8~10). 뿐만 아니라 노예노동력 위에 세워진 모든 도시국가의 문명을 송두리째 부정해야 한다(창4:17). 도시문명을 대신할 대안을 제시하려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희망의 내용이었다.

토라의 솔라정신은 이처럼 배타주의를 버리고 보편의 바다에 노 저어 가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의 희망을 목청껏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만신전의 다른 신들을 생명이 없는 우상이라고 가르쳤던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었다. 이것이 소위 헤브라이즘의 사상적 요체인 것이다. 이것은 곧 바로 우상제작 및 숭배금지의 선포로 이어진다.

3.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혁파하라

십계명의 다음 조항은 우상제작 및 숭배금지의 조항이다. 원문을 자세히 보면 남다른 뜻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긴 우상’은 원어로 <페셀>이다. <페셀>은 ‘조삭(彫削)하다’란 동사 <파살>에서 파생한 명사형이다. 나무나 돌을 쪼아서 조삭한 모형을 페셀이라고 부른다. 페셀이란 단어를 ‘새긴 우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물체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삭하는 노동행위의 결과물을 가리킨다. 목재를 공급하는 장소는 산판이었고 산판의 힘겨운 노예노동에서 페셀이 생산되었다. 또 석재를 생산하는 채석장에서 강제노동이 자행되었고 채석장의 힘겨운 노예노동에서 페셀이 생산되었다. 이것이 페셀이란 단어가 지닌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페셀에는 노예노동력이 투여되어 있다. 노예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노예노동으로 만든 모든 물건의 제작을 금하신다. ‘페셀을 만들지 말라’(출20:4; 신5:8, 로 타아세-러카 페셀). 계약법은 서두에서 페셀을 해설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출20:23). 원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를 만들지 말라. 은신<엘로헤이 케세프>으로나 금신<엘로헤이 자하브>으로 만들지 말라.’ 금이나 은은 조삭행위로 제작할 수 없다. 불에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작품을 뽑아야 한다. 계약법의 금신과 은신은 십계명의 폐셀을 좀 더 상론하고 있다. 계약법은 주물신상의 제작을 금지한다. 주물신상의 제작이 중단되면 광산업자가 망한다(행 19:24~27).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말씀의 두 돌판을 받는 동안 산 밑에서는 백성이 아론을 압박하여 금송아지를 제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출 31:18~32:6). 이로써 처음 맺은 언약은 무위로 돌아갔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진노를 풀으신 후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는 다시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상제작의 금령을 선포하시는데 이때 폐셀이 아니라 <마세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출34:17). ‘신상들’의 원어는 <엘로헤이 마세카>인데 <마세카>를 직역하면 ‘주물상’이 된다. <마세카>는 철이나 구리 따위를 녹여서 부어 만든 주물상(鑄物像)을 가리킨다.

주물상의 제작을 위해서는 구리나 철을 캐는 광산의 노동이 전제되어 있다. 도시문명은 청동기시대에 발호하여 오랜 세월을 거쳐 철기시대를 낳았다. 도시문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청동제 무기와 철제 무기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이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광산업이 성하였다. 광산에서 금속을 채굴하려면 노예노동력을 대량으로 투입해야했다. 대량의 노예노동력은 임노동으로 공급할 수 없었기에 포로들을 양산하는 전쟁이 문명생활의 필연이 되었다.

새 언약법이 규정하는 것은 광산에서 자행되는 노예노동의 금지였다. 십계명과 처음의 언약법은 채석장과 산판의 노예노동을 금지했다. 유일신 신앙은 전쟁을 불법화하고 노예를 해방하라고 선언한다. 더 나아가 노예들의 노동현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에 대하여 생산금지 처분을 내린다. 곧 ‘만들지 말라’는 금령을 선포하였다. 노예노동의 생산물을 금지하게 되면 도시국가의 체제는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유일무이하다. 여느 도시국가의 만신전에 부속된 신도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작업이 야훼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와 같이 토라의 솔라정신은 고대 노예제를 딛고 번성하던 모든 도시국가 문명의 존재방식을 송두리째 부정하며 무너뜨린다.

4. 야훼 제단의 솔라정신

언약법의 서장에는 제단법이 나온다. ‘내게 토단을 쌓고’란 규정이 이채롭다(출

20:24). 원어를 음역하면 <미즈박흐 아다마 타아세-리>이다. <미즈박흐>는 ‘제단 / altar’이고 <아다마>는 ‘흙’이다. 개정역은 이 둘을 합쳐 ‘토단(土壇)’이라고 하나의 용어로 번역했으나 새번역과 공동역은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옮겼다. 흙으로 만든 제단은 돌로 만든 제단을 부정한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제단이 돌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 출20:4에서도 명하셨듯이 야훼 하나님은 채석장에서 만든 석제품 <페셀>을 싫어하신다. 간혹 흙이 없는 자갈밭이나 돌밭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부득이 돌로 제단을 쌓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제단을 쌓도록 명령하신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출20:25). ‘다듬은 돌’은 원어로 <가지트>인데 정으로 쪼아서 만든 석제품을 가리킨다. 고대의 지구랏과 피라미드 같은 제국의 제단이 하나같이 정으로 쪼아서 만든 <가지트>로 건설되었다. 이것들이 모두 노예노동의 산물이란 점에서 <페셀>, 곧 ‘새긴 우상’과 본질상 동일하다. 페셀이나 가지트가 모두 노예노동의 산물이기에 노예들이 짝어낸 벽돌로 비둠과 라암셋 같은 국고성을 건설하는 일도 야훼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일이었다(출1:11). 노예노동력을 상징하는 작업은 창세기 서론의 말미를 장식하는 바벨 도성의 건축 현장에도 묘사된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창11:3). 바벨 도성민들이 지구랏과 같이 층계를 놓아 하늘까지 닿게 높은 ‘탑<믹돌>’을 건설하였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층계를 놓지 말라고 엄금하신다(출20:26).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권을 유린하고 피를 흘려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을 금지하신다.

시내산에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제단법을 후세의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다. 후일 통일 왕국을 경영한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법을 무시했다. 흙으로 쌓는 제단은 위용도 없고 외모도 초라하니 일국의 왕실 채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흙제단은 이곳저곳 유랑하는 나그네들에게 걸맞는 제단이었다. 솔로몬이 다윗의 통일 왕국을 물려받아 국가의 위용을 뽐내기 위해서는 웅장한 건물을 지어야 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과감하게 페셀과 가지트로 건축할 것을 지시했다. 레바논 산판에 대규모 노동력을 투입하였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말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목과 돌들을 갖추니라’(왕상5:17~18). 히브리어 성경은 왕상5:31에 <가지트>란 단어를 명기하여 출20:25을 위반하였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 재목과 석재들을 갖추기 위해서 솔로몬은 십만여 명의 백성들을 노예노동력으로 동원하였다(왕상5:13~16).

그러나 솔로몬은 시내산의 언약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묘안을 궁리해냈다. 석자재를 채석장에서 다 쪼아서 만든 다음에 현장에서 조용하게 조립하는 방식이었다. 석재나 목재를 멀리 떨어진 공방에서 다 깎아 만든 다음에 성전 마당으로 가만히 운반해 와서 그것들을 조립하여 맞추는 건축 방식을 고안했다. 이

로써 방망이로 쪼는 소리가 성전 뜰에서는 야훼께 들리지 않게 하였다(왕상6:7). 왕국의 위용을 갖추면서도 야훼 하나님께 비유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솔로몬의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싫어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집에 야훼 하나님께서 입주하실 리는 만무하였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야훼께서 임재하여 거주하지 않으셨음이 드러났는데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성전을 다 허물어 뜨려도 야훼는 묵묵부답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의 국가성전에는 야훼께서 계시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을 점령하던 초기에 여호수아는 자연적으로 제단을 쌓았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자연석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는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수8:31). 이처럼 처음에는 제단법을 잘 지키던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이방 국가들의 풍물에 영향을 받아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야훼 제단의 솔라정신이 무너지고 말았다. 국가의 위용을 자랑하려면 거대한 신전이 필요했다. 야훼 신앙을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전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질은 불가피했다.

북왕국 시대에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고쳤다. 치유를 받은 나아만은 오로지 야훼에게만 흠 제단을 쌓겠다고 결심한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흠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왕하5:17). 이스라엘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의 제도를 도입한 까닭에(삼상8:5, 20,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야훼를 섬기는 제단을 이방인들의 제단처럼 다듬은 돌로 만들어 개악하고 말았다. 이것이 왕국과 성전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가나안의 세속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 야훼의 제단은 유일한 제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단 동쪽 지파들이 실로의 제단과는 다른 큰 제단을 따로 쌓았다(수22:10). 이에 온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약하고자 하느냐? ...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따졌다(수22:16~20). 이스라엘에는 오직 여호와와 제단만 허용될 뿐 저마다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비느하스의 추궁에 답변하기를 그들이 만든 제단은 제사용이 아니라 후세를 위한 기념물로서 여호와와 제단 모형에 불과할 뿐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수22:28). 이로써 갈등은 해소되었다.

야훼예배의 솔라정신은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나안의 종교는 저마다 도시국가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다. 그들이 국가의 종교가 되기를 원하였다면 야훼종교는 국가의 종교를 거부한다. 이 점에서 야훼종교는 세상종교들과 완전히 구별된다. 종교인이 국가의 권력과 짝하여 사회의 상층부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용되기를 바란다면 그는 야훼종교와는 무관한 바알의 종교인이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우상숭배자에 불과하다. 야훼종교의 예배자들은 국가의 권력구조로부터 완전한 일탈을 시도한다. 이것이 야훼예배의 솔라정신이다.

이들이 성경을 작성하였다. 토라를 작성한 공동체는 바빌로니아 시대에 도시 인근의 촌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그 도성을 위한 노예노동에 종사했다. 이들 디아스포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치하에서 자치공동체를 형성했다. 디아스포라 자치공동체에서 말씀예배가 발달하였으며 성경이 저술되었고 이들은 국가를 대신할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솔라주의자’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예수를 내세우면서 엉뚱하게도 교권주의와 교회주의를 표방한다. 기독교의 교권을 거머쥐고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들은 스스로 사회의 유력자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더 나아가 국가권력자들과 노닐기를 탐한다.

5. 토라의 하나님나라: 말씀공동체

유일신 사상은 운동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도시국가들의 사회체제를 부정하며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추동하였다. 다신교의 우상숭배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갈라져서 싸우는 것을 합리화하였다.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벌이는 갈등의 사회상황을 전제로 다신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사회사적 본질이다. 전쟁과 투쟁의 악순환에 빠진 사회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다. 인종차별과 계급대립과 국가경쟁의 우상숭배는 모든 시대의 바탕을 이루어왔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부른다. 죄악의 시대에 종언을 선포하고 그 대신에 만민평등과 계급화해와 인류우애를 펼치는 새로운 사회를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추동하였다. 이것이 곧 말씀예배의 기원이었다. 오로지 야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나누는 소통과 조화의 에큐메니즘 공동체가 말씀공동체로서 성립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에큐메니즘을 유일신 신앙의 언어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종과 민족의 다종 다기한 전통과 문화가 온누리에 퍼져 있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 안으로 나아와서 믿음이라는 넓은 마당에서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며 춤을 춘다. 이것이 토라가 꾸는 희망의 꿈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룩하려는 개혁운동이 곧 유일신 신앙이었다. 토라의 ‘솔라 피데’는 오직 로마 카톨릭의 미사만이 참 성례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박

탈하며, 거꾸로 오직 개신교의 교조만이 참되고 나머지 신조들은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만용도 배제한다.

따라서 유일신 신앙은 권력을 쥔 지배자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연약하여 억압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공동체에서 유일신 신앙이 태동하였다. 도시국가가 추동하는 모든 물질주의 문명과 권력지상주의, 그리고 엘리트의 지배체제를 우상숭배로 규정하는 힘은 노예살이로 고난을 당하는 하위 천민 집단에서 솟구쳐 올랐다. 우상숭배가 권력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와의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 유일신 신앙이다. 다시 말하자면 유일신 신앙은 세속주의와의 결별이며 세속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대안사회의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유일신 신앙운동은 처음부터 평화주의를 표방하였으며 만민평등사상을 제시하였다. 그 태동기에 벌써 제국의 억압을 받았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그들은 모든 억압을 물리치고 모든 피억압 민족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구원의 현실적 내용으로 선포하였다.

유일신 신앙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이다. 창조 신앙을 바탕으로 구원사상도 제자리를 잡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도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복되게 살아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생명의 연결망에 사람이 있어 그 중심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생명 살림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자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유일신 신앙의 이러한 에큐메니즘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적 내용이다.

나가는 말

유일신 신앙의 본질은 에큐메니즘에 있다. 그러나 에큐메니즘은 유대교의 당국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말았다. 유일신 사상운동에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요구가 개입하면서 다윗왕국이 재건을 노리는 메시아주의가 득세하였다. 국가의 건설을 부정하는 토라의 말씀을 저버리고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스모네 왕국을 통하여 성립한 바리새주의는 마침내 유일신 사상을 변질시켰다. 그들의 손에서 토라는 배타주의를 내뿜는 다신교의 아류로 퇴영하고 말았다. 유대주의라는 새로운 해석의 기관이 유일신의 보편주의를 왜곡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로써 토라를 압도하고 말았다. 이러한 왜곡을 바로 잡으신 분이 예수였다.

예수는 토라가 가르치는 솔라정신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삶에 적용하였다. 로마제국을 타파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여 참된 다윗왕국을 재건하려는 노력은 예수로 인해서 오류임이 드러났다. 유대민족주의의 선민사상을 고취하는 일체의 유대교는 예수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교권주의는 예수에게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바리새적 유대

교를 부정하였다. 이로써 기독교가 교회의 형태로 역사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교회는 유대교가 왜곡한 유일신 신앙을 바로 잡았다. 토라를 왜곡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교설을 제시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의 우시아(ousia)이며 세 가지 휘포스타시스(hypostasis)로 일치되어 있음을 가르쳤다. 삼위일체는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유일신 신앙을 가리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로써 교회는 토라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유대교의 민족주의와 혼동함이 없이 올바르게 펼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제시한 삼위일체의 교설이 불행히도 칼을 거머쥐고 휘두르는 로마국가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국가의 권력과 결합한 로마교회의 손에 의해서 모든 다양한 신앙사상들은 배척당하고 제거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박해를 견뎌온 교회가 콘스탄틴 시대에 거꾸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처형하고 박해하게 되었다. 권력을 진 교회는 세상의 국가질서를 유지할 필연성 때문에 반드시 폭력을 휘두르는 법이다. 자기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단자로 낙인이 찍혀서 박해를 당하여 죽어갔다.

개혁교회는 다섯 가지 '솔라'의 원리를 표방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박해해서는 안 된다. 개혁교회는 다른 신앙을 박해하는 오류에 빠진 로마교회에 저항하였다. 다섯 가지 솔라의 원리는 교권주의나 교회주의를 표방하는 원리가 아니었다.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강변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를 제한하려는 교회주의자들을 향해서 개혁교회의 솔라 원리는 스스로 개혁하라고 요구한다. 성경은 교회의 교권주의와 교회주의에 저항한다. 개혁자들이 성서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은 참된 유일신 사상으로 회귀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교황청과 전쟁 상황에 돌입하면서 세속국가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혁교회는 자본가들과 결합하여 근대국가의 건설에 앞장 섰다. 바로 이 점이 국가를 경계하라는 토라의 가르침에 위배되었다. 이로써 서구의 국가들이 식민지 시대에 아시아, 아프리카에 폭력을 휘둘렀을 때 개혁교회는 그들의 악행을 저지하지 못하였다. 근대국가가 자본가 사회를 이루고 노동자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했을 때 교회는 침묵하고 말았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부단히 개혁해야 한다(칼빈). 로마교황청이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저질렀던 수많은 폭력 사태를 개혁교회도 그대로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새로운 개혁의 솔라 원칙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회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 서구교회의 교권주의와 교회주의를 조금이라도 내재하고 있는 신학사상과 교회 공동체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새로운 교회 안에서 철저히 녹아져 없어져야 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만물이 숨을 쉬고 생명을 꽃피우고 있느니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변화된 상황에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 생명을 꽃피워야 할 것이다.

이영재 목사님의 “오경에 비추어 본 솔라 정신” 에 대한 논평

김근주(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먼저 한국교회에 만연하여 이제는 교회를 해치는 것으로까지 여겨지는 이른바 “솔라” 주의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는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영재 목사님의 귀한 글을 읽고 나누는 기회를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의 글은 다섯 가지의 솔라 가운데 ‘솔라 피테’와 관련하여 오경 특히 신명기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 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솔라’로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헐파하라’, ‘흙으로 만든 제단과 자연적으로 만든 제단’이라는 ‘솔라’ 등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는 유일신 사상이야말로 토라가 제시하는 에큐메니즘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이 담고 있는 중요한 주장들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경 자체는 믿음에 대해 그리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신명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솔라 피테가 아니라 솔라 그라치아야말로 오경의 정신이다.

2. 십계명의 유일신 선언은 고대 만신전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에 기반한 도시 국가의 변형시스템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만신전과 도시국가에 대한

강력한 배타주의, 그리고 이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노예 노동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유일신 선언은 이러한 배타주의와 노예제도에 대한 강력한 거부이며, 배타주의에서 출발한 전쟁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다.

3.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이러한 우상을 만들기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노예제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우상을 만들 것에 대한 금지는 노예제도에 대한 금지이다.

4. 흙으로 만든 제단과 자연석 제단에 대한 강조 역시 노예 노동에 기반한 도시 국가에 대한 거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런 점에서 야훼종교는 도시와 국가에 결부된 종교이기를 거부한다.

5. 우상숭배와 다신교는 상대에 대한 배타성과 더불어 서로를 향한 갈등과 전쟁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바벨론 포로 이래 유일신 신앙은 소통과 조화의 에큐메니즘 공동체를 지향한다. “모든 인종과 민족의 다종 다기한 전통과 문화가 온누리에 퍼져 있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 안으로 나아와서 믿음이라는 넓은 마당에서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며 춤을 춘다. 이것이 토라가 꾸는 희망의 꿈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룩하려는 개혁운동이 곧 유일신 신앙이었다.”

6. 결론적으로 교권주의와 교회주의를 거부하며 형성되어 온 기독교 신앙과 종교 개혁의 정신이 오늘의 한국교회에서는 도리어 교권주의와 교회주의의 토대가 되어버렸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장들이 주는 의의가 큼니다.

1. 솔라 피데보다 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솔라 그라치아라는 것은 오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신앙 전반에서도 매우 중요한 토대일 것이며, 이를 든든히 할 때, 겸손에 기반한 성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 잘 부각되고 있다.

2. 유일신 신앙과 다신론에 기반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차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이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네 교회는 종교와 경제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처럼 여기지만,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종교는 이 땅에서의 경제와 국가 체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으며, 가나안 만신전에 근거한 다신론은 도시 국가간의 갈등과 전쟁을 통한 정복을 필연적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우상 숭배가 지니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의미를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다.

3. 마찬가지로, 우상 제조에 대한 금지, 흙 제단과 자연석 제단 강조 역시 노예 노동에 기반한 문명에 대한 강력한 거부라는 점도 이 글이 일깨우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체적으로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으로부터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멀리 떠나 버렸는지를 이 글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이 목사님의 전체적인 주장에 강력히 동의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소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이 글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구원”이라는 표현과 연관된다. 3쪽에서 이 글은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물려받았으며 후대에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칭의를 물려받았다”고 진술하며 창15:6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의로움을 부각시킨다. 이 문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물려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버지가 의로 인정받으면 그 아들에게 그 의가 물려질 수 있는 것일까? 달리 말해, “아만”의 히필형이 ‘하나님을 믿다’라는 의미로 쓰인 예가 창15:6 외에는 없다는 이유로 이삭과 야곱 등은 아브라함의 의를 물려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이다.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없을까? 이 글은 칭의 이전에 소명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그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의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표현이다. 데라도 가나안을 목표로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렀다(창11:31).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까지 갔다(창12:5).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현실이 된다. 믿음의 표현이 없으면 구원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경에서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모든 부분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순종과 실천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임하는 구원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니었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오경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극히 적은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글이 진술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이 주어진다”(4쪽)면 이

스라엘의 불신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게 되어 버린다. 이런 식의 논리적 영킴은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신약적 도식으로 구약을 풀기 때문이 아닐지 조심스러운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 역시 오늘날의 의미와 구약에서의 의미가 꽤 차이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소 영켜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구약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신약 교회가 쓰는 의미와 꽤 거리가 있다. 신약의 구원과 달리, 구약의 구원은 일상에서의 전쟁의 승리, 홍해를 건넌,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됨 등 모든 삶의 차원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다. 구약의 백성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내내 구원이라는 것이 보장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제라도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은 현실화되지 않는다. 결국 구약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 나서기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칭의론”이라는 전혀 생소한 틀에 따라 구약에 적용할 때, 그리 간단치 않은 복잡함이 생겨 버리는 것 같다.

2. 6쪽에서 이 글은 유일신 신앙과 노예 해방의 연관에 대해 서술한다. 노예 해방에 대한 사상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렇게 해방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날의 사상을 구약에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배타주의를 버리고 보편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지만, 고대 근동의 종교들인들, 자기네 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야훼 신앙과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그리고 상대의 종교를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선언해 버리는 것을 가리켜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상대의 신을 전부 부정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만이 참 신이라고 주장하는 신앙을 보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을 진멸한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일 것이고, 그 죄악을 노예 노동에 기반한 폭력의 문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할 뿐, 구약 안에서 제대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신전 종교가 보편주의가 아니라 질투의 신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보편주의라는 주장, 유일신 신앙이 에큐메니즘의 언어라는 주장은 좀 더 많은 논리 전개가 필요할 것 같다. 9-10쪽에 있는 ‘다신론적 우상 숭배가 국가간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불러 일으킨다. 유일신론은 그렇지 않은가? 유일신론에 기반한 여호수아의 전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유일신론에 기반하여 이상적인 군주로 그려지고 있는 다윗의 수많은 전쟁(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평가될 정도였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유일신 신앙이 처음부터 평화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정복 전쟁과 공존할까? 유일신 신앙이 피지배층의 종교라는 점 역시 논리적으로 만만치 않다. 오히려 하위 천민 계급이던 이들은 오랜 노예 생활에 찌들어 광야 방랑 내내 애급 시절을 그리워했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하위 천민계급을 구약의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이 글은 19-20세기 이래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수천 년 전의 구약 성경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 문서들이 보이고 그리는 세상을 왜곡하게 되지는 않을까?

3. 이 글 9-11쪽에서는 선언적인 진술들이 여럿 있다. 예를 들어, “디아스포라 자치공동체에서 말씀예배가 발달하였으며 성경이 저술되었고 이들은 국가를 대신할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었다”(9쪽) 같은 문장이다. 이 문장의 진술 하나하나가 선언적이다. “디아스포라 자치공동체”라는 표현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바벨론 포로들에게서 어떤 “만민평등과 계급화해와 인류우애를 펼치기 위한 말씀예배”가 존재했는가? “성경이 저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를 대신할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언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4. 이 글 마지막의 “나가는 말”에서 유대교 당국자들에 의해 유일신 신앙의 에큐메니즘이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서술되어 있다. 이 시기에 다윗왕국의 재건을 노리는 메시아주의의 득세. 배타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득세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리새적 유대교가 가져온 결과로 진술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2성전기 유대교에 대해 지나치게 좁게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유대교의 폭은 상당히 넓고,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평가하기 힘들다. 바리새파에 대해서도 그러하며, 그리고 쿨란과 에세네파 등의 모습은 이 시기 유대교의 보편주의적 구약 신앙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내고 있기도 하다. 이 부분이 글의 주된 논점은 아닌지라 상세히 다루지 않은 점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선언적인 유대교 진술이 조금 재고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겨진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들은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이지만,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1. 증빙 구절로 제시된 것들이 그리 석연치 않은 것들이 몇 군데 있다. 억압 아래 있다 보니 강박하게 바뀌어 버렸다는 표현에 대한 출13:15; 신2:30 언급; 특히 애굽에서 살다가 히브리인들도 악해졌고, 그래서 갈라져 싸우게 되었다는 진술의 근거로 제시된 출18:13. 이 구절은 구약 재판 제도와 그 당사자들을 세우게 되는 본문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이 글은 “토라가 펼치는 ‘솔라 피데’는 의인론을 바탕으로 은총론을 통하여 겸손과 청빈의 삶으로 귀결된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글은 토라에서 의인론이 큰 역할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론을 바탕으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아가 “청빈의 삶”에 대한 언급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인데, 이에 대해 본 글에서 어느 정도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3.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야훼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의 근거로 출6:3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가?

4. 5쪽: ‘다른’의 반대말이 ‘엑하드’라고 보는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

5. 6쪽: 야훼께서 노예들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해방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구약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

6. 8쪽: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러한 제단법을 어겼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제단법을 어겼기에 야훼께서 성전에 거하실 리 만무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야훼께서 침묵하셨다는 진술은 그리 균형적이지 않다. 이 경우 히스기야 시절 산헤립의 침공시에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히스기야의 사례를 보건대, 문제는 제단법이 아니라 야훼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성전 자체를 의지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7. 가나안 종교가 국가 종교가 되었다면 야훼 종교는 국가 종교이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되고 있다. 그렇지만 요단 동편 지파의 제단에 관한 이야기 다음에 국가 종교이기를 거부한 야훼 종교 이야기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어지는지 불명확하다. 국가 종교이기를 거부한 야훼 종교에 동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약 본문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 명료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야훼 종교의 예배자들은 국가의 권력구조로부터 완전한 일탈을 시도한다” 같은 선언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종교개혁의 정신은 복음의 본질을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교권주의와 교회주의를 넘어서려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솔라 정신”에 대한 이번 토론회의 의의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이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솔라 정신”에 대한 이 목사님의 글은 야훼를 섬긴다는 것이 당대의 사회에 어떤 충격과 변화를 제기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앞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대안과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솔라주의로서의 기독교 근본주의: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대안모색

최대광(목사, 정동제일교회)

들어가는 말

솔라원리란 ‘유일주의’ 곧 종교개혁에서 나온 루터의 선언이지만, 그 안에 언제나 배타성을 전제하고 있다. 솔라원리가 기존 부패한 가톨릭에 저항하며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서구 전통의 부정의 길 *via-negativa*의 발현이라면 환영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근세와 오늘날의 기독교 근본주의와 같이 이성과 합리주의에 대한 저항을 통해 신화적 세계관과 낭만적 복고주의로의 퇴행을 향한 길에 사용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근본주의는 합리주의를 거부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조롱하며, 미국식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성립된 한국의 기독교는 “근본주의 기독교회”라고 분류해도 무방할 만큼 근본주의는 압도적이다. 근세 이후 교육의 중심인 관용은 근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즉, 반현대적 퇴행인 근본주의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절대다수인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국내와 국외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논문이 나왔고, 이에 대한 비판서들도 꽤 나와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대중성이다. 근본주의는 교회의 강대상을 통해 방송의 드라마와 영화 소책자들을 통해 매주, 매일 선포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대응은 거의 없어도다가, 이제 책들과 몇몇 강연을 통해서 소수의 제한된 인원들만 강연을 듣고 있다. 앞

으로 근본주의에 대한 연구와 현대주의에 대한 비평이 더 활발해지면서, 자신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대한 성찰이 더욱 풍부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근본주의에 대한 정의와 미국과 한국의 근본주의를 소개하면서, 결론에는 근본주의에 대한 극복 가능성에 관해서 언급할 것이다. 완성도는 높지 않지만, 이를 통해 근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

1. 근본주의란?

폴 힐라스와 린다 우드헤드가 편집한 현대의 종교 Religion in the Modern World 에 서는 현대의 종교현상을 커다랗게 세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분류방식이 절대적일 수 없지만, ‘근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유용한 틀인 것은 분명하다. 이들은 종교를 “차이점의 종교” religion of difference와 “인본적 종교” religion of humanity 그리고 “삶의 영성적 종교” spirituality in life로 분류한다. 전통적 방식 곧 교조에 의한 종교 분류방식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종교의 존재/활동방식으로 구분한 것이다. 곧, 한 종교 안에서도 이 세가지의 종교적 형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종교의 ‘차이점’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체화하며 세계관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인본주의 곧 ‘합리주의적’ 틀 안에서 종교를 구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삶의 영성적 종교” spirituality in life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절대자 혹은 공을 체험하려는 영성가적 스타일의 종교인들이다. 한국의 기독교 안에서는 절대 다수가 타종교와의 ‘차이점’을 통해 구원과 멸망을 구분하려는 사람들이다. 합리적 근거 안에서 성서와 전통을 재구성하고, 사회참여에 강조점을 두려는 소수의 사람들과 수도사적 내적 체험을 통해서 신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역시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 종교 분류 방식에 의하면, 이 셋은 하나의 종교 안에 있지만, 폴 힐라스와 린다 우드헤드가 제시한 틀로 볼 때, 이 셋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누구를 ‘고백’하느냐가 종교 분류의 주 관심사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어떤 형태의 존재/활동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종교를 분류하는 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본주의를 “극단적 차이점의 종교” religion of heightened difference로 구분한다. 극단적 차이점의 종교란 단지 ‘다름’을 통해 자신을 정체화하는 영역을 넘어서 있다.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다름은 ‘악’이고 동질은 ‘선’이라고 정의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전통적 종교 안에서의 이들의 제휴관계를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간 대결이란 “극단적 차이점의 종교”인 근본주의를 가진 기독교인과 역시 같은 형태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 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타리크 알리의 책 『근본주의의 충돌』은 ‘무

신문자'인 저자가 기독교와 이슬람 근본주의의 대결과 국제질서를 성찰한 책이다. 종교간 충돌은 전통적 종교적 구분 안에 “차이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간의 갈등인 것이며, 넓게 보면 이들간의 갈등은 신자유주의를 통한 미국의 세계를 강화하는 에너지라는 것이다. 힐라스와 우드헤드는 근본주의 (그들은 이를 “차이점 중심의 종교” religion of difference라고 부른다)적 종교 형태는 20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 형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¹⁾ 이유는 차이점의 종교가 다원화된 현 세계에서 확실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대단히 ‘학자적’이고 ‘온건한’ 표현 방식이다. 왜냐하면, ‘차이점’을 통해 타자와 나와와의 극단적 ‘반대’를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다툼이나 싸움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으로는 폭력을 만들어 내며, 국가적으로는 ‘전쟁’을 발생시키며 나아가 경제적 양극화를 정당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티브 브르워와 다른 저자들이 편집한 책, 미국식 복음의 수출 Exporting American Gospel, 에 의하면,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근본주의자’라고 불리워지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²⁾라고 했다. 이들은 ‘근본주의’ 보다, “복음주의” 혹은 ‘주권주의’로 스스로를 정체화 한다. 근본주의 Fundamentalism의 원형은 20세기 초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발행된 팜플렛에서, 근본: 진리를 향한증언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 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합리주의와 현대주의에 대한 반발로, 양보할 수 없는 5가지의 기독교 교리를 제시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 “성서 무오설, 그리스도의 신성과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심판을 위한 재림, 사탄과 비기독교인들의 멸망,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³⁾이었다. 즉, 보수적 개신교인들이 합리주의적 시대정신에 반발하여 본인들이 보기에 핵심적인 개신교 진리를 제시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근본주의의 반 지성주의와 반 합리주의 그리고 복고적 낭만주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구조주의적 틀로 살펴 본다면, 이들은 신앙을 비합리의 향에 위치시키고, 합리성을 비신앙의 향에 위치시켜, 합리성을 신앙과 이항대립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합리주의는 비록 전통적인 기독교의 세계관에 때로 위협적이거나 때로 수정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반신앙적이라는 것은 그들만의 생각일 뿐이다. 여하튼, 이성을 신앙과 대립하는 영역으로 설정했던 프린스턴의 “5개의 근본”은 이성의 시대

1) Heelas, Paul and Woodhead, Linda, *Religion in Modern Times*, (London: Blackwell 2000), 52

2) Brouwer, Steve and Others, *Exporting American Gospel*, (London: Routledge, 1996), 263

3) McGrath, Alister, *Modern Christian Thought*, (London: Blackwell Publishers., 1993), 230

이후에 발생한 반동적 형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보수주의’ 혹은 ‘전통주의’라고 하지 않고 구태여 이를 ‘근본주의’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 스티브 브로우워는: “이들이 근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회/정치학적 운동에 관여할 경우 (때때로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때)에 해당한다”⁴⁾라고 말하고 있다. 보수주의란 과거 전통과 삶의 방식에 회귀하는 개인적인 삶의 형태라면, 근본주의는 정치적 운동을 통해 합리주의적 삶의 양식을 몰아내고, 전통이라는 체계에 숨어 있는 신화적 가치와 삶의 방식이 지배하는 퇴행적 세상을 꿈꾸는 것이다.

크리스 헤지스가 쓰고, 정재복이 번역한 『지상의 위험한 천국』은 미국의 근본주의와 이의 전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주의적 주권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글에서, 크리스 헤지스는 근본주의의 발생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수백만 미국인을 그 운동속으로 이끌어온 고통, 혼란, 소외, 고통과 절망은 실재하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붕괴된 것에 책임이었다고 비난하는 문화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적 전통과 계몽적 가치가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믿는다. 그들은 감각 상실, 고통이나 기쁨이나 사랑을 느끼지 못함, 거대한 공허감, 무서운 고독, 통제 상실에 대해 말한다. 개인적 자유와 선택으로 이루어진 합리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세계는 많은 사람들을 차례 차례 뱀 구동이에 빠져들게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들의 공동체 가정, 삶이 분열되고 자멸할 때에도 수동적으로 방관했다. 이 절망 속에서 이 신자들은 과학과 법과 합리성의 세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했다. 그들은 개인적 선택과 자유를 의도적으로 피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저버린 세계를 예언자와 신비한 표징으로 가득한 새롭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대체해왔다.⁵⁾

고전적인 근본주의는 합리주의적 세계의 충격에 대한 반동으로 5가지의 교리를 내세워 신화적 낭만주의로 퇴행하려고 했지만, 현대 미국에서 성행하는 근본주의는 계몽적 가치에 소외된 삶의 상처로 인해 성서의 신화에 도피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영국의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근본주의자들이 성서의 ‘신화적’ 그리고 ‘상징적’ 언어를 ‘과학적’으로 오독한 데에서 찾고 있다: “종교적 믿음을 과학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문제로 만드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었다. 신학적 언어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언어는 본래 상징적 이었다. 종교적 언어가 문자 그대로 해석되면 역겨운 것이었지만, 상징적으로 해석되면 톨스토이의 단편들 처럼 초월적 실재를 드러내는 힘을 발휘”⁶⁾한다고 했다. 성서의 신화적 언어란 곧

4) Brouwer and Others, 264

5) 크리스 헤지스, 정연복 옮김, 『지상의 위험한 천국』 서울: 개마고원, 64 쪽.

상징 언어인데 이를 근대의 시대정신을 표현한 과학적 논리로 읽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오독의 원인은 사회적 좌절과 불확실한 세계관에 근거하여 신화 안으로 도피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근본주의는 전통주의의 옹호에서 출발하며, 합리적 세계관을 거부한다. 이를 묶어낼 수 있는 이들은 세속과 ‘다른’ 자신들 만의 성스러운 세계관을 설정하고, 세속주의를 적대자로 간주한다. 종말론적 심판이 적들을 파괴하거나, 혹은 그 이전에 저들이 ‘회개’한다면 다행인 것이다. 실로 대단히 폭력적 세계관인데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런 세계관이 한국의 기독교를 형성하는 보편문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미국의 국가주의와 근본주의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직결된 근본주의의 발상지는 미국이다. 근본주의는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에 의해, 복고적 낭만주의로 퇴행하는 반동적 의식이라고 했는데, 실상 이것은 파시즘의 기본적 문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지상의 위험한 천국』 앞부분에는 움베르토 에코가 쓴 “파시즘을 식별하는 14가지 방법”⁷⁾을 소개하고 있다. 크리스 헤이스가 근본주의를 “미국의 파시스트” American Fascist라고 정의를 내린 바와 같이, 파시즘에 관한 보편적 구분 방법은 근본주의의 발생원인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에코는 파시즘의 특징을 “전통의 숭배에서 출발하여, 현대성 곧 다원성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비합리주의를 찬양하게 되고, 다양성에 반대하므로 불일치는 배반이라는 생각이 탄생한다고 말한다. 파시즘 역시 개인이나, 사회적 좌절에서 출발하며, 이들은 “적들은 강하며 자신은 약하다”는 패배의식 속에서 서로간에 연대성을 강화하고, 적들과의 ‘최후’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에게 평화주의란 비굴한 타협이고 배반일 뿐이다. 이 파시즘 안에서 각자는 영웅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파시즘과 근본주의의 관계에 관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파시즘은 종교가 국가적의 영역으로 ‘증폭’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미 미국의 텔레비전 지상파를 통해 설교자들은 “종말론적 정화를 통해 낡고 죄 많은 세계를 박멸하고 이로 인한 공허함을 시간이 멈추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새로운 세계로 채우겠다”⁸⁾고 약속하고 있다. 낡은 세계란 오히려 현대의 다원화된 세계이며,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 이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 곧 미국의 (근본주의

6) 암스트롱, 카렌, 『신을 위한 변론』 서울: 웅진, 2010, 426-27 쪽.

7) 위의 책 7-14 쪽

8) 위의 책 73 쪽

적) “기독교 정신”으로 되돌아간 신화적 세계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혹은 이보다 더 온건하게, “우리가 할 일은 그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을 그리스도에게로 회개시키는 것”⁹⁾이거나, “하나님의 섭정 대리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학교, 우리의 정부, 우리의 문학과 예술, 우리의 스포츠계, 우리의 오락 매체, 우리의 뉴스 매체, 우리의과학적 노력들, 요약하면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과 제도에 대해 경건한 지배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¹⁰⁾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교육에 침투하여 창조론을 가르치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동성연애를 반대하며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거나, 때로 이들을 박해하고, 중동지역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과 다양성에 반대하는 정치가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슬람과의 전쟁에 나선 미국을 ‘십자군’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미국적 가치에 ‘반’한 사회주의적 사상을 증오하고, 복지정책도 반대하고 있다. 근본주의자들이 현대주의의 파생물들에 좌절감을 느껴 신화주의로 퇴행했는데 여기에 미국의 국가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국가주의-자본주의”라는 의식 그 자체가 ‘신화화’ 되었다는 것이다. 근본주의는 합리주의와 신앙을 이항대립적으로 파악 한다고 했다. 바로 이 사유에 사회개혁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지는 모두 ‘인본주의적’일 뿐이며 불신앙의 결과일 뿐이다: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오직 믿음뿐일 때, 즉 믿음만이 질병을 고치고 괴로운 감정들을 물리치고 재정적, 육체적 안전을 보장할 때, 외부의 세속적 제도들, 사회봉사와 규제기관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가 재정이나 사회적 책임도 필요없다. 그 운동의 추종자 중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정부기관들에 의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믿음 체계는 모든 세속적 개입에 적대적이다. 세속적 제도들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 부족, 즉 하나님의 마법과 기적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 안에서 설교하는 메시지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제거, 파괴하고 정부 규제와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최대의 이윤을 방해하려고 하는 노동조합과 같은 모든 조직의 기반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의 메시지와 딱 들어맞는다.¹¹⁾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저널리스트적으로 고발한 토마스 랭크의 책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미명하에 ‘정부’를 비판하는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수주의자가 물리치고자 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정부, 말하자면 ‘진보

9) 위의 책 96 쪽

10) 위의 책.

11) 위의 책 258 쪽.

주의 정부’,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워싱턴’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연방 도시 워싱턴과 그 정책들을 비난하는 공세를 오늘날까지 놀라울 만큼 일관되게 펼쳐오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가진 창의성과 분노, 방대한 물적 자원을 남김없이 쏟아 부었다. 그렇게 퍼부은 비난의 근거는 이제 더 없이 익숙해져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잠에 빠져들 때조차 줄줄이 읊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정부는 당신이 벌어들인 돈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간다. 워싱턴으로 방대한 양의 달러가 유입된다… 1964년에 로널드 레이건은 “괴롭힘 당한 적 없는 기업가가 없다”라며 분노했다. 또한 “하늘이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우리 권리가 마치 정부의 자비로 주어진 것 처럼 여겨지고 있다. 자유가 이토록 취약했던 적이 없고, 자칫 자유를 잃어버릴 위험이 이토록 컸던 적도 없다.”라며 소리를 높였다.¹²⁾

이들이 큰 정부에 대해 비난을 퍼는 것은 세금의 축소와 규제철폐 그리고 민영화를 통해 공공의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전환시키려는 음모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 ‘자유’ 등이며, 이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인본주의자 곧 ‘합리적’세력이다. 근본주의자와 결합된 우파 보수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은 적들을 회개 (전향)시키던지 아니면 사탄의 세력으로 공격하는 종말론적 환등상을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스티브 브로우워는 바로 이 점, 곧 근본주의가 자본주의와 국가주의에 의해 ‘신화적’ 환등상으로 결합되는 지점이 바로 미국식 근본주의가 생산된 양식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각 개인들을 위한 계획은 힘의 지배와 끊임없는 성장과 풍요를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된 미국의 근본주의는, 미국 역사를 추진하는 동력 이었다”¹³⁾ 제럴드 앤더슨은 이런 신화적 문법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890년에 미국이 현재의 영토를 차지 했을 때, 자신들의 영토를 미국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하려는 욕구가 있었다. 미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나라이며 또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끌고나갈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의 운명적 교리는 앵글로 색슨족의 민족적 우수성에 기대고 있으며, 미국은 서쪽으로 향하는 문명의 중심에 서 있고, 미국의 정치구도는 탁월하고, 미국의 개신교는 순수하고, 영어는 모든 인류가 배우기 원하는 언어라는 것이다.¹⁴⁾

12) 프랭크, 토마스,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서울: 어마마마, 2013, 47 쪽.

13) Brouwer and others "Fundamentalist Americanism and Christian Fundamentalism," in *Exporting American Gospel*, 13

14) Anderson, Gerald H., "American Protestants in Pursuit of Mission: 1886 - 1986," in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12, (1988), 98 Quoting, Smylie.

이러한 앵글로 색슨적 민족주의적 국가주의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선민의식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콜로라도주의 주지사인 윌리엄길핀은 1846년에 주지사에게 보내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한다:

미국 국민의 운명은 이 대륙을 정복하는데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의 사회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불멸의 임무!
세계의 국가들이 이 문명의 질서에 편입될때 미국은 각 국가들의 주체가 될 것이며, 전 세계를 산업으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¹⁵⁾

당시의 근본주의적 설교자인 조시아스트롱 (1847-1916)은 앵글로 색슨족의 우수성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미국이라는 담론을 기초로 미대륙 전체를 돌며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그의 책, “우리나라”와 “새시대: 다가올 나라”는 “175000 권이 팔려 나갔다.”¹⁶⁾ 이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름인 드와이트 무디의 전국적 부흥회는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 그의 설교의 핵심은: “미국의 우수성과 개인적 구원과 복음주의에 초점을 맞추었고, 바로 이것이 근본주의적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사항이었다. 이는 성서의 무오설, 반 역사주의, 반 과학주의, 전천년주의적 위기였다.”¹⁷⁾ 무디의 핵심 메시지는 “나는 기독교인이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¹⁸⁾였다. 즉, 자본주의와 국가주의가 신화적으로 결합된 미국식 근본주의는 19세기에 걸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무디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은 미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미국 근본주의를 확산시키게 된다. 마크 놀은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디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네트워크가 성립되었으며, 이는 선교의 운동으로 확산 되었다. 장로교인인 피어슨 A.T Pierson 은 1880년대에 선교사 협회를 창설하였으며 약 3000명의 선교사 지망생들을 선발되었다. 피어슨은 또한 1895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 하나인

John Edward, "National Ethos and the Church" in *Theology Today*, 20. no. 3 (1963), 314

15) Ibid. 15

16) Ibid.

17) Brouwer and others, op.cit. 23.

18) Ibid. Quoting, Rifkin, Jeremy (with Ted Howard), *The Emerging Order: God in an Age of Scarcity*, (New York: Putnam, 1979), 155.

아프리카 내륙 선교협의회를 창설하였다. 보스톤의 침례교 목사인 고든 A.J Gordon은 1889년에 보스톤 선교훈련원을 창설하여, 여성 평신도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1890년에는 심슨 A.B. Simpson이 해외 미션 네트워크를 창설하였으며 미국 내 선교협의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존 모트 John R. Mott는 피어슨에 의해서 북미의 선교에 선발되었고, 선교 지원의 필요성을 미 전역을 돌며 전파하기도 하였다.¹⁹⁾

무디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 ‘미국적’ 기독교인 근본주의가 단지 미국에만 머물러 자신들의 개인적/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한 단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한국이나 여타 국가로의 선교는 ‘신화적’ 미국의 확장주의였으며, 이 확장의 방법 혹은 정복의 방법은 자본주의와 근본주의의 퇴행적 신화가 결합된 양태였던 것이다. 이런 “기독교적 미국-자본주의-국가주의”라는 성스러운 신화적 결합체의 외곽은 언제나 ‘적’으로 설정된다. 곧 솔라주의는 이런 근본주의적 결합체 “미국-자본주의-국가주의”에 의해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화적 결합체를 받아들이면 ‘회개’이고 거부하면 ‘파괴’일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 의해 전달된 한국의 근본주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3. 한국의 근본주의

조선에 대한 미국의 선교가 시작된 때는 앞서 언급한 무디의 근본주의와 세계선교의 영역이 확장될 당시였다. 배덕만에 의하면, “한국에 상륙한 최초의 두 미국 선교사였던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모두 미국 근본주의 태동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무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²⁰⁾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무디의 종교대각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선교사 지원자들이 동양으로 향했으며, 이들에 의해 “미국식” 복음이 이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근본주의가 한국의 전통사상이나 문화의 어떤 측면과 조우했는지는 더욱 철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자의 해석만을 절대화하는 한국의 유교전통, 조선시대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중앙집권제,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한 후 스스로 “소중화”라고 자처하며 한족의 정통성을 이어나간다고 착각한 대국 콤플렉스, 민중들 사이에 오랜 기간동안 유행했던 정감록과 같은 종말론 사상 그리고 후에 출현한 반공주의 등이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이식되는 토양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덕일이 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에서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노

19) Noll, Mark A.,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2), 291

20) 배덕만,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서울: 대장간, 2010년, 31쪽.

론의 논리와 형성에 관해 쓰고 있다. 이후로, 조선과 일제시대까지의 실질적 주류는 ‘노론’이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 이덕일은 송시열이 윤희를 “사문난적”이라 취급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윤희가 경전을 주희와 다르게 해석”²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시열은 이렇게 말했다

고금 천하에 어찌 악한 자가 없겠는가. 하지만 윤희처럼 주자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자는 있지 않았다. 비록 중국의 왕양명이나 이탁오와 같은 양명학자들의 말이 불손하다 해도 윤희보다는 덜했다... 하늘이 공자에 이어 주자를 내셨으니 참으로 만세의 도통이다. 주자 이후로는 일리(一理)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고 일서(一書)도 명확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윤희가 감히 자신의 견해를 내세워 가슴 속의 억지를 늘어 놓으니, 윤희는 진실로 사문난적이다.²²⁾

송시열은 “사서보다도 사서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중시”²³⁾했다고 한다. 논어보다, 주희의 논어집주를, 중용보다 주희의 중용장구를 더 중요시 했다는 것이다. 경전보다 ‘해석’을 절대화 했던 송시열과는 달리 윤희는, 해석을 넘어 경전 그 자체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덕일은 이런 윤희의 발상을 ‘교회’라는 해석적 권위를 지닌 집단을 넘어 “예수와 직접 접촉하려 한 시도”²⁴⁾한 종교개혁과도 그 맥락이 같다고 보았다. 여하튼, 조선시대의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있던 문화는 경전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주자를 제외한 해석은 모두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문화가 형성됐던 것이다. 이런 문화는 노론집권 300여년간, 곧 조선의 전 역사를 관통하며 계속되었던 것이다. 조선은 봉건 영주들에 의해 권력이 분점되는 사회가 아니고, 왕에 의해, 더 넓게 보면 왕과 당파에 의해 통제되었던 중앙집권적 사회였다. 이들의 흐름을 막거나 비판할 사람이 극소수인 전체주의 사회였던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마야자키와 몽테스키외의 말을 빌려 이를 “개별사회” 혹은 “중간세력”²⁵⁾이 사라진 사회라고 말 한다. 즉, 중간세력이나 개별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왕과 관료 중심의 전체주의 사회는 통제의 효율을 위해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역시 메이지 유신 이후로 개별사회를 해체하고 등장한 일본의 전체주의적 군국주의는 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전체주의는 꽤 장시간 동안 한국인의 세계관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원적 의식보다도 중심

21) 이덕일,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서울: 김영사, 2011, 206쪽.

22) 위의책, 207-208쪽.

23) 위의책 206쪽

24) 위의책 209쪽

25) 가라타니 고진, 『정치를 말하다』서울: 도서출판 b, 2010, 153쪽.

주의나 유일주의 곧 솔라주의적 의식을 만들어 내게 된다. 주류이론이나 사유 혹은 집단을 정론이나 중심집단으로 보고, 이에 저항하는 것은 이단이나, 비주류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 특징은 수 많은 당쟁과 더불어, 조선말기 ‘서학’이라고 알려진 가톨릭에 대해 가혹한 박해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자학적 ‘솔라주의’가 기독교나 다른 이즘으로 옷을 바꿔 입었을 때, 역시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 것이다.

조선의 전체주의적 토양 위에, 근본주의자로 구성된 선교사들은 초창기 한국의 신학교육을 책임졌다. 배덕만은 이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만열 교수가 분석한 자료로는, 초창기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학반 (후에 평양 신학교와 협성신학교로 각각 발전함)에서 가르친 교수들이 총 55명 이었고, 그 가운데 한국인 교수 16명을 제외한 39명의 외국인 교수 중 33명이 미국인이었다. 장로교 선교사 중 출신학교가 밝혀진 16명 가운데 7명이 프린스턴신학교 출신이었다. 당시 프린스턴신학교는 벤자민 워필드와 그래삼 메이첸의 영향하에 근본주의 신학의 요람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미국의 근본주의적 신학이 전수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음이 틀림 없다.²⁶⁾

초창기부터 미국의 ‘근본주의’가 신학의 원형으로 자리를 잡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근본주의 신학은 앞서 언급한 한국의 전체주의적 문화와 결합하여 이 땅에 곤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선교사들은 당시 선교사들의 잡지에서 한국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유교나 불교 그리고 무속을 “한국 선교의 방해물들”²⁷⁾이라고 칭하면서, 동양의 종교적 유산을 가난의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피스스는 유교와 무속을 두고 아예 “한국의 악마들”²⁸⁾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즉 “기독교적 미국-자본주의-국가주의”의 신화적 결합체인 근본주의의 테두리 밖은 ‘개종’과 ‘회개’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틀이 한국에 이식되면 “기독교적 한국-자본주의-국가주의”로 변형되는데 이는 좀 더 시간이 걸려야 했다. 이유는 한국은 합리적 근세주의가 소개되기도 전 미국의 근본주의가 이식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주의가 합리적인 계몽적 세계관에 대한 복고적 낭만주의의 신화성으로 퇴행하는 것이라면, 아직 경험해 보지도 못한 ‘합리주의’가 오히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 조선인들에게 전파되었으니까 말이다. 이때에 생겨난 것은 한국사회에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전체주의와 문자주

26) 배덕만, op.cit. 33쪽.

27) Vinton, C.C., Obstacles to Missionary Success in Korea in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December, 1894, p.841.

28) Griffis, William E.,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2), p.232.

의의 결합이었다.

1930년대에 있었던 자유주의적 신앙인들에 의한 “여권문제사건” “창세기 모세 저작 부인 사건” “아빙돈 성경주석 사건” 등등 은 성서에 대한 근본주의적 해석 (송시열의 사서에 대한 주희의 해석만을 고집한 것과 같이)만을 인정하고, 좀 더 유연한 해석을 정죄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진정으로 한국의 보수주의가 근본주의화 되는 과정, 곧 보수주의가 정치화 하여 미국과 같이 “기독교적 한국-자본주의-국가주의”가 결합되어 등장했던 형태는 최근의 일이다. 물론 이것이 등장하기 위한 역사적 원인이 있어야 했는데, 이것은 6.25 전쟁이었다. 성서에 대한 보수적 해석만을 고집했던 이들은, 역시 원론적 공산주의자들과 대립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써, “해방전 한국 개신교 인구의 70-80%를 차지하던 서북출신 개신교인들이 대거 남하하는 사태가 발생”²⁹⁾ 했다. 이미 전쟁 전 이들은 대거 남하하여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 곧 ‘차이’와 반反 의식을 형성하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전쟁으로, 교인들이 대거 목숨을 잃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명확한 ‘적’이 설정된 것이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10월 신안군 진리교회에 ‘48인 순교기념탑’이 건립된 것을 시발로, 1951년 8월에 선결교 호남지방회가 중동리교회에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기념비를 건립했고, 종전 직후인 1953년 12월에는 24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집단학살 당한 전남 영암군의 영암교회에 순교비가 세워졌고, 1954년에는 한기련의 주도로 서울 남산에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1956년에는 신축된 논산병촌교회가 ‘순교자기념예배당’으로 명명되고, 1957년에는 진리교회에 순교기념비가 건립되고, 1959년에는 병촌교회에 ‘6.25동란 순교자 기념비’가 건립되는 등 ‘순교성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났다.³⁰⁾

기념사업이 진행되면서, 순교담론은 한국개신교 신자들에게 신실한 신앙의 원형을 형성시켜 주었고,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에게 두 아들과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긴 손양원목사는 대중적 영웅으로 추앙되었다. 또한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로 목숨을 잃은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목사는 1970년대 후반,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의 순교이야기를 영화화한 <저높은 곳을 향하여> (임원식 감독)와 <사랑의 원자탄> (강대진 감독)이 많은 관객을 끌어 모으면서 일년 사이에 순교영화가 두편이나 제작·상영되었던 일도 주목할만하다.”³¹⁾ 이런 “순교담론을 통한 신화화된 신앙”과 북에서 남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 기독교인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결합되면서 한국

29) 배덕만 op.cit. 41쪽.

30) 강인철, 『한국개신교와 반공주의』서울: 중심, 2007, 152쪽

31) 위의책 157쪽

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타자 곧 ‘공산주의’가 위치하게 되었다. 전쟁 후 한국 장로교의 경우 “4명중 1명이 월남한 기독교인”³²⁾ 이었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반공투쟁으로 인한 순교자의 후예라는 자부심”³³⁾으로 가득찬 사람들 이었다. 이들은 한국 개신교의 양대조직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막강한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순교담론의 신화화를 통해 반공주의를 확산시키고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나, 약자를 위한 사회참여에 대단히 소극적이 되고, 반공주의를 내면화한 성서해석의 보수주의와 문자주의로 스스로를 정체화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신화화된 순교담론을 통해 형성된 반공주의는 보수주의 안에 내면화 하고 있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근본주의적 성격 곧 “정치참여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강인철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개신교 진보세력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기도회정치 (prayer meeting politics)’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개신교 보수세력에 의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 2005년 11월에 개신교 보수세력이 주도하는 ‘기독교사회책임’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나란히 창립된 데 이어 2006년 6월 말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산하조직인 ‘기독교 뉴라이트’까지 결성됨으로써, 개신교 보수세력들은 정치사회 (political society)와 교회의 갭을 메워줄 연결조직까지 확보한 셈이 되었다.³⁴⁾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었다. 1997년, 반공을 모태로 한 주류집단이 야당이 되었고, 햇빛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소통이 활성화 되었다. 한번도 객관화되지 않았던 ‘반공’이 분석과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의식의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80년대를 기점으로 금서에서 해제된 마르크시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높아져 가는 합리주의, 동양철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종교의 상대주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복고적 낭만주의로의 퇴행의식이 생겨나고 이들의 정치화가 시작된 것이다.

반공주의를 내재화한 이 근본주의는 당연히 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지배하던 주류세력과 결합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주의적 운동으로 확산되게 된다:

...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르자 보수적 개신교인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몰려나와 정부를 성토했고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2001년 6월 단군상 무단철

32) 위의 책 433쪽. 조형, 박명선,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 비교” 164-167쪽 재인용.

33) 위의 책 437-438쪽

34) 위의 책,, 27쪽.

거 행위로 인해 목사 세 명이 구속되면서 보수적 개신교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보수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와 보수적 개신교간 갈등의 원인은 다음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김대중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는 도외시한 채 추진하는 햇빛정책과 김정일의 답방을 고대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불만, 둘째, 김대중 정부가 공공장소에 단군상 설치를 허용한 것과 단군상을 훼손한 목사들을 구속한 데 당산 불만, 셋째, MBC가 교회 비판 방송을 많이 하는 등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는 기독교 비판여론이 기독교를 자극했다는 것” 등이었다.³⁵⁾

곧 “공산주의=악”이라는 의식이 위기에 봉착했고, 새로운 시대적 조류 곧 합리주의와 상대주의에 응답하지 못하는 기존의 문자주의적 성서이해는 복고적 낭만주의 곧 신화적 세계관으로의 퇴행이 시작된 것이다. 진화론에 대항하는 합리주의로 위장한 신화체계인 창조과학이 만들어지고, 뉴라이트의 수장이 교회 목사가 되기도 했으며, 정권을 비판하는 반공집회에 신도들이 동원되기도 했던 것이다.

스티브 브루어우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근본주의자들이 정치세력화하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³⁶⁾고 말했지만, 그의 글이 쓰여 진지 한참이 지난 지금, 한국의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적극적 정치참여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이미 근본주의자들의 지지 하에 부시가 당선되기도 했다. 2007년 2월 보수적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상임대표는 “대선후보 검증을 하겠다”³⁷⁾ 라고 말했다.

즉,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와 같은 양상으로, 혹은 벤치마킹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2007년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이 만든 “애국포럼”발대식에 관해서 동년 4월 16일 국민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4·11총선에서 기독교자유민주당을 지지했던 보수교계 인사들이 오는 12월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회장 최병두 목사)는 16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애국포럼 발대식을 갖고 전국순회 포럼과 강사 육성, 서명 등으로 이번 총선에서 얻은 25만표를 지렛대삼아 대선에서 기독교당의 12대 주요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대 공약은 종북좌파 척결과 반복음법 저지, 교회 은행이자 2% 이하로 인하, 주일 국가시험 폐지 등이다.

기독교당과 순회포럼을 사실상 이끈 전광훈 청교도영성훈련원장은 전국순회 포

35) 위의 책, 44-45쪽.

36) Brouwer and others, op.cit, 45-46

37) 동아일보 2007년 2월 15일자

럼의 목적이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과 ‘예수 한국’의 비전성취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한국교회는 복음의 힘으로 독립운동과 새마을 운동을 이끌면서 국민의식을 깨우치고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그러다 1970·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천주교에 그 역할을 넘겨주면서 점차 주도권을 잃고 교인 수 감소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결과 천주교가 갑질의 부흥을 경험하게 됐고 한국교회는 점차 정체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됐다”면서 “문제는 장로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신앙으로 어렵게 지켜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중복좌파 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이번 선거의 정당투표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사회는 보수가 진보보다 약간 부족한 지지도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간 몇 만표 차이로 좌파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교체가 이뤄져 대한민국 해체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 25만표의 지지를 얻은 기독교의 존재감이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전 원장은 “이를 위해 전국순회 애국포럼을 개최하고 포럼을 인도할 수 있는 1000명의 강사 목회자를 육성해 연말 대선까지 크리스천의 힘을 모을 것”이라며 “애국운동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한국을 예수 한국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신신묵 김진환 김홍도 서기행 김영백 오관석 이만신 최윤권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추대했다. 또 최병두 고충진 김동권 김재규 이태희 김충립 박유생 이재창 최낙중 이태근 목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³⁸⁾

다행히 기독교당은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좌파’에 대한 증오는 우파와 결을 같이 한 미국식 근본주의를 닮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말하는 예수정신 곧 신앙을 좌파 곧 사회개혁과 진보의식과 그리고 합리주의의 이면에 놓았다는 것도 신앙과 합리성을 이항대립적으로 설정한 근본주의 문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근본주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근본주의 역시 물질적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치부하면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기쁨을 붓고 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과 잘살아 보세”의 구호와 발을 맞추며, 성장과 성공은 이미 한국사회의 욕망 아이콘이 되어 왔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부활한 무디인 크리스탈 교회의 로버트 솔러가 “긍정적인 삶”으로 이보다 더 최근,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의 근본주의적 축복과 성공은 끊임없이 한국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근본주의가 배타성과 자본주의가 결합된 형태를 띠는 것과 같이, 한국의 교회도 그 길을 따르고 있다. 이미 순복음 교회가 3박자 축복이라 하여 현세주의적 축복을 강조하며 대 성공을 이루어 한국 최초의 대형교회가 된 것과 같이, 한국의

38) 『국민일보』 4월 16일자 강조는 필자.

대형교회는 세계적 수준이다. 백소영이 쓴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에서는 저자는 우연히 한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됐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사역자이신 000 목사님이 성령에 취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교회를 통해 많은 사회적 지도자들을 배출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인력자원공급센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분야에서 기름부음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교회 성도들 중에 획기적인 의학적 방법으로 수술을 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여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 영역에서 높이 들린 우리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 예언은 어느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교회에 계속 임할 것입니다... 오직 이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³⁹⁾

답임자는 계속 “우리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백소영은 이성을 넘어선 계시와 신앙을 인정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만, 그것도 한 특정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만 배타적으로 내리는 계시, 더구나 개인이 세속적 성공을 위한 ‘전문적 아이디어’로써의 계시라는 말은 성서나 교리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길 없는 인간의 사리사욕, 잘못된 욕망의 발현”⁴⁰⁾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만의 배타적 집단이 대박이 나고, 이를 통해서 회사가 차려지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회구조가 한 사람의 성공 혹은 ‘우리 집단’의 승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능성과 성실성을 짓밟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못보고 (혹은 가리고) 있다는 점이다.”⁴¹⁾ 이런 배타적 변영의 신학은 매주 거의 모든 교회의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미국-자본주의-국가주의”적 틀이 이제 한국의 근본주의적 기독교인들에서도 “기독교적 한국-자본주의-국가주의”라는 배타적 결합체가 형성된 것이다. 미국에서 자본주의와 국가주의가 신화적으로 결합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반공주의’라는 트라우마와 합리주의와 상대주의의 도전으로 나타난 퇴행성이 신화화된 자본주의와 국가주의로 결합된 것이다. 설교와 기독교의 보수적 잡지를 보면 ‘성공’이 성서와 결합되어 얼마나 신화화 되어 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80년대에 조용기는 “성령께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새로운 예루살렘 곧 선교의 중심지로 택하셨다”⁴²⁾라고 했다. 한국은 ‘이스라엘’ 혹은 ‘새예루살렘’으로 신화되었고, 이 신화화된 국가와 선민의식이 자본주의의 신화화된 이름인 “자유민주주의”로

39) 백소영,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 서울: 그린비, 2013, 114-115쪽.

40) 위의 책 116쪽.

41) 위의 책 117쪽.

42) Bower, Steve and others, p. 118

변형되어서 “기독교적 한국-자유민주주의-국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전환 되었다. 이렇게 때문에 진보의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무리 중 하나이며, 타종교인 혹은 기독교내 종교대화 와 다원주의적 신앙 혹은 자유주의적 신학은 금란 교회 김홍도 목사의 말을 빌면, “자유주의 신학은 사탄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파괴 하는 데 가장 큰 도구입니다. 따라서 신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종들”⁴³⁾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근본주의가 솔라주의적 성격을 띠는 방식은 기존의 세계관이 합리주의나 상대주의 혹은 다원주의 등과 같은 계몽주의나 현대주의로 인해 위기가 왔을 때, 신화적 세계관으로 퇴행하는 것이며 이에 적대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면, 같이 살아야 할 타자는 곧 ‘적’이 되며, 이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대화가 아닌 개종이나 싸움이 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고 타자의 변화만을 강제하게 된다. 바로 이곳에서 폭력이 나오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인 사랑과 평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하면서, 스스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배타의식이 존재하는 곳에서 신실한 신앙인이란 ‘타자’에 대한 적개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이웃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타자에 대한 증오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아이러니가 멀쩡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오는 말

솔라주의 곧 유일주의는 배타의식의 잠재력을 숨기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의식의 현대적 표현을 근본주의라고 했다. 이 종교의식은 이미 모든 종교 안에 동지를 틀고 있지만, 린다 우드헤드와 폴 힐라스에 의하면, “차이점의 종교”는 가장 성공적인 현대의 종교형태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 원인을 이들은 “흔들리는 사회”에서 보았다.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는 자신들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반’ 곧 ‘솔라’라는 유일주의적 세계관에 쉽게 몰입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근본주의의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며 현대 한 복판에서 신화적 세계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결국 솔라주의의 대중적 표현형태인 근본주의에 대한 치유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근본주의란 성서에 대한 설익은 해석이나 문자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에 대한 ‘좌절’을 숨기며 신화적 세계로 퇴행하면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좌절을 ‘인생역전’의 은혜를 통해 성공으로 바꾸는 교회 강대상의 선편가 되던지, 가난과 좌절에서 성공했다는 기업주의 간증이 되던지, 이것이 드라마와 영화

43) 김홍도, “자유주의 신학은 사탄의 가장 큰 도구.” 「불기둥20」, 서울:불기둥사, 1993, 61 쪽.

로 신화화 되던지 반 합리주의적 신화는 지금 이순간에도, 사회의 문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주의는 “기독교적 한국-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결합체라고 했다. 결국 기독교 근본주의에 관한 문제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며 의식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반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적 의식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근본주의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럽의 사회복지국가를 보면, 결국 근본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와 타자를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가 확립됐을 때이다. 삶이 예측 가능하고, 좌절의 확률이 낮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낮을 때, 신화와 비합리로의 퇴행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위에서 밝혔듯, 미국 내의 우파 보수주의자들이 국가재산을 민영화 곧 사유화하며, 복지를 줄이면서 합리성 혹은 ‘인본주의’와 반대 항인 신화적 믿음을 곧 신앙이라 생각하게 하는 것과 같이, 근본주의에 대한 치유는 사회복지의 확대에 있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안에서 취해야 할 것이 있다. 중앙집권적 문화 안에서 다원성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스스로 근대성을 소유해 보지 못한 한국에 미국식 근본주의가 기독교의 ‘원형’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은 교회 안에서는 자유주의(이단의 완곡한 표현)이다.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문화’란 것이 ‘근본주의 문화’일 뿐이며, 기독교 전체 역사에 있어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카렌 암스트롱이 말했듯이, 상징적 문서인 성서를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해석하는 독법이다. 물론 여기서 파생한 창조과학을 통해 신화적 세계관은 그 생명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신화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잠에서 꿈을 합리적으로 꾸는 사람은 없으니까. 미국의 통합심리학자 켄 윌버는 복고적 낭만주의와 초합리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전/초오류”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어떤 의미에서 영성이란 단지 합리성을 넘어서는 무엇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실제로 초합리적인 것이 있고, 전합리적인 것도 있다. 전합리성은 [감각적 지각, 약동하는 생명감, 신체적 감정, 유기체적 정서와 같은] 합리성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든 양태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속성상 여하한의 미사여구를 동원한다고 해도 합리성을 배제하려는 성향이 있다. 반면에 초합리성은 이성의 다른 쪽에 놓여있는 것이다. 일단 이성이 창발하고 나서 견고하게 강화되면 의식은 계속 성장하면서 발달하고 진화하여 초합리적이고, 초인격적이며 초개체적인 지각의 양태들을 향해 옮겨간다. 전합리성과는 달리 초합리성은 합리적 조망을 기꺼이 포섭하고 나서 그 자신의 독특한 정의적 특성을 추가시킨다. 그래서 초합리성은 결코 반이성적이 아니라 아주 우호

적인 방식으로 초이성적이다.⁴⁴⁾

월버를 통해 근본주의를 살펴본다면, 근본주의란 이성이전의 전합리성 곧 복고적 낭만주의이며, 초합리성은 이성을 포함한 초이성적 영역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그 영역에 대한 체험이다. 그런데 이 두 영역 그러니까, 전합리적인 복고적 낭만주의와 초합리적 종교체험을 혼돈한 것을 전/초오류라고 칭하고 있다. 근본주의에서 선포하는 마술적이고 신화적 세계관은 복고적 낭만주의 곧 전합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항대립적으로 놓고 창조과학을 선포하면서, 신앙과 불신앙을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면, 근본주의에 대한 종교 안에서의 극복은, 이성을 신앙의 반대편에 위치한 근본주의의 사고 구조를 해체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과 성찰 또한 의심을 통한 이성적 분석은 근본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런데 생각과 성찰 그리고 의심을 받아들이고 이를 넘어서는 것을 기독교 신비주의 혹은 오강남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심층종교’다. 서구에서는 동양의 명상과 뉴에이지에 대한 응답으로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들과 중세의 수도원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을 재 발견하며, ‘영성’이라는 학문적 분야를 생산해 냈다. 우리나라에도, 합리성과 새로운 시대정신에 개방적이며 이를 감고 넘어서는 심층종교에 대한 연구와 관상기도의 실천이 더욱 활발해 져야 할 것이다. 근세의 합리성을 포함하며 넘어서는 초합리적 신비주의 전통이 기독교 초기부터 중세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재 구성되어야 하며, 이런 운동의 확산이 복고적 낭만주의로써 신화 의식에로의 퇴행하는 근본주의에 대한 종교적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4) 켈 월버, 『감각과 영혼의 만남』 서울: 범양사, 2010, 174-175쪽.

“솔라주의로서의 기독교 근본주의: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대안모색 에 대한 논찬

이형기(명예교수, 장신대)

I 요약

1. 근본주의란?

발표자는 기본적으로 20세기 초 프린스턴 신학교의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 를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역사적 출발로 보면서, 폴 힐라스와 린다 우드헤드가 편집한 현대의 종교 *Religion in the Modern World*에 소개된 종교의 분류방식을 크게 참고하였다. 즉, 그는 이 저서에서 종교가 “차이점의 종교” religion of difference와 “인본적 종교” religion of humanity 그리고 “삶의 영성적 종교” spirituality in life로 분류되었다고 하면서, “차이점의 종교”를 근본주의와 동일시하였다.

2. 미국의 국가주의와 근본주의

발표자는 미국의 개신교 근본주의는 WASP의 우월성을 이스라엘의 선민 우월주

의와 동일시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와 국가주의를 정당화하고 절대시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파시즘의 어떤 특징들과 상응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2000년 이래로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정치세력화에 맞먹은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정치세력화가 부각되었다고 하면서, “기독교적 미국-자본주의-국가”의 도식이 “기독교적 한국-자본주의-국가”와 상응한다고 보았다.

3. 한국의 근본주의

발표자는 한국 개신교의 초기 장감의 선교사들 역시 앞에서 정의한 그리고 미국적인 상황에서 등장한 근본주의 전통의 복음이해와 성경해석을 한국에 이식시켰다고 보면서, 이들 선교사들은 왕과 관료들과 당파들 중심의 중앙집권체제와 주자에 의한 경전에 대한 독점적 해석과 같은 토양 위에 복음과 성경을 이식시켰다고 보았다. 그리고 2000년에 접어들면서 보수주의가 정치세력화하여 미국과 같이 “기독교적 한국-자본주의-국가주의”가 이념화되었다고 하였다.

결론 부분

발표자는 “차이점의 종교”(린다 우드헤드와 폴 힐라스)가 다른 아닌 배타주의적 혹은 솔라주의적 근본주의이고, 미국에든 한국에든 이는 정치사회문화적인 위기의식 때문에 등장했다며, 그 해결책으로서 1. “기독교 한국-신자유주의-국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적 이념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타자를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의 확립이 요청되고, 2. “이성이전의 전합리성 곧 복고적 낭만주의”가 아니라 “이성을 포함한 초이성적 영역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그 영역에 대한 체험”을 제시하면서, 이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부정적으로는 hermeneutics of suspicion과 긍정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포함하여)하면서도 이를 초월하는 기독교 신비주의 혹은 심층종교(수도원주의도 포함하는)에 대한 추구를 제안하고 있다.

물론, 발표자는 이상과 같은 결론부분에서 제시한 근본주의의 해결책 이외에, 이미 본문 가운데서 제시한 개신교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들에서 그 대안의 단초들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개신교 근본주의가 Sola주의 혹은 배타주의에 입각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 대한 적극성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다고 할 때, 발표자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근본주의자들이 타종교는 물론 타 기독교 교파들에 대하여 전혀 포용적

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볼 때, 그는 교회들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간접적으로 주장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질문

1. 유럽과 미국의 18-19세기 복음주의 각성운동과 이로 인한 복음전도 혹은 기독교의 지리적 확장 시기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복음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미국의 구프린스턴 신학을 잇는, 근대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20세기 초 근본주의의 복음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어느 정도 다르다고 볼 때, 발표자가 초기 장감의 미국 선교사들을 전적으로 개신교 근본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2. 미국의 PCUSA와 감리교의 대부분 등 ‘근본주의’라고 볼 수 없는 개신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개신교 근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의 제한적 범위를 밝혀 두어야 하지 않을까?
3. ‘근본주의’를 신화적이고 낭만적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4. 근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십층종교’를 제사하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I. Sola주의 극복을 위한 신학적 대안:

에큐메니칼 운동이 말하는 다양성 속에서의 코이노니아

1.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일성으로 하는 다양한 메시지들의 코이노니아로서 성경

1963년 몬트리올 ‘신앙과 직제’의 제2 분과(“Scriptures, Tradition, and traditions”)는 교파들이 서로 다르지만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소망 안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신학적인 전통들(traditions) 안에서 하나의 전승(the Gospel Tradition)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본 문서는 제2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론’(Dei Verbum)⁴⁵)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서 교회들이 성서와 교회 각각의 통일성을 공유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해답을 준다. 우리는 아래의 인용

45) Walter M. Abbott, S.J.(ed.), The Documents of Vatican II, trans. by Joseph Gallagher, American Press/Association Press, 1966, p. 112.

문에서 “복음전승”(the Tradition)이 경전으로서의 성서의 기원이요, 구속사적 배경을 지닌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전승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들로서 우리 모두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자신의 역사의 시작이며 끝이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은 그의 계시의 전승(T)을 등장시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유일회적인 계시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주어진 계시를 증거 하게 하였다.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전 12:3)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다. 성령의 인도 아래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구전과 기록된 전통은 성경의 형성과 교회의 성서로서의 구약과 신약의 경전화를 가져왔다. 전승(T)이 성서들에 앞선다는 바로 그 사실은 전승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며, 그러나 또한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로 가리키는 것이다.(42)⁴⁶⁾

- 46)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사(Ⅱ). 신앙과 직제 문서사: 1963-1993』, 귀터 가스만 역음/이형기 옮김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38-39. 참고: 1927년 로잔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는 처음으로 ‘복음’을 에큐메니칼하게 정의했다. 그리하여 이 ‘복음’정의는 1928년 ‘예루살렘 IMC’의 헌장 안에 그리고 1940년대에 오면 ‘중국 그리스도 교회’(the Church of Christ in China)의 헌장 안에 포함되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각 교파가 나름대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으나, 과연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논할 때, 이와 같은 ‘복음’ 정의는 꼭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래의 긴 인용을 읽어 보자.

세상을 위한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항상 복음이어야 한다. 복음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구속의 기쁜 메시지인 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성령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고, 무엇보다 구약 안에 주어진 그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셨는데, 때가 차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성육하시 인간이 되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가르침, 그의 회개에로의 부름,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심판에 대한 선포, 그의 고난과 죽음, 그의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로의 승귀, 및 그의 성령의 파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충만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계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완전한 사랑에 호소하시어 우리들을 신앙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한 자기희생과 헌신으로 부르신다.

(중략)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예언자적 부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칭의와 성화의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이다. 무인 자들에게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에 대한 확신이다. 복음은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고, 사람 안에 자기 부정, 형제의 섬김을 위한 준비, 그리고 긍휼을 불러일으킨다. 복음은 젊은이들의 열망을 위해서 최고의 목표를 제공하고, 일하는 자에게 힘을, 지친 자에게 쉬움, 그리고 순교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제공한다.

복음은 사회적 갱신을 위한 확실한 힘의 근원이다. 복음은 인류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를 황폐케 하는 계급과 인종의 증오에서 벗어나 국가적 복지와 국제적 우정과 평화의 즐거움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포한다. 그것은 또한 동구와 서구의 비기독교적 세계가 살아계신 주님의 기쁨에 들어오게 하는 은혜로운 초대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사(Ⅱ). 신앙과 직제 문서사: 1963-1993』, 귀터 가스만 역음/이형기 옮김(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36-37).

이상과 같은 ‘복음전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vere Deus et vere Homo라고 하는 정통 기독교론(451)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1990년대 이후로는 여기에 더하여 삼위일체론이 크게 강조되었으니(콘라드 라이저), 기독교 교회들과 기독교 신학들은 이와 같은 기독교론적이고 삼위일체론적인 복음을 통일성으로 하여 성경의 다양한 메시지들의 코이노니아를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개신교 근본주의의 sola주의는 성경의 모든 명제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biblicism), 교회들과 신학들의 다양성의 코이노니아를 추구하지 않는다.

2. 교회들과 신학들의 통일성과 다양성 그리고 ‘선교와 복음전도’(CWME) 그리고 사회참여(Life and Work)

에큐메니칼 운동이 보여 주는 ‘교회일치’추구는 획일적인 일치추구나 흡수통일적인 일치추구나 ‘초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 ‘신앙과 직제’ 전통은 교회들 사이의 ‘다양성 속에서 일치’(unity in diversity)를 추구하다가 1960년대 제2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교회들의 양자 간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교회들의 ‘다양성 속에서 코이노니아’(koinonia in diversity)를 더 힘주어 말하게 되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는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는 바, ‘신앙과 직제’는 1.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로 고백된 사도적 신앙에 대한 에큐메니칼 해설서, 2. BEM Text에 따른 세례 성만찬 사역(Ministry)에 대한 신학적 수렴, 그리고 3. 협의회적 관계들의 구조와 결의구조(the structures of conciliar relations and decision-making)에 근거한 가시적 일치추구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포르트 알레그로 WCC 총회 보고서는 WCC의 목적과 기능 가운데 ‘신앙과 직제’와 ‘세계선교와 전도’ 그리고 ‘삶과 봉사’ 운동을 합체시켜야 하는 것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 근본주의는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근거한 교회들과 신학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코이노니아’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차원의 사역을 위한 에큐메니칼 연대를 거부한다.

3.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 다종족 다종교

우리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정보통신’의 글로벌화로 초래되고 있는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의 이슈를, 모더니즘의 해체를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생

각해야 한다. 첫째로 리오타르는 각 담론의 차이(disparity)와 배리(背理)(paralogy)를 말한다. 때문에 리오타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원주의(pluralism), 다양성(diversity), 다름(difference), 그리고 타자의 타자성(otherness of others)이다. 둘째로 푸코는 담론들의 다원성, 다양성, 그리고 상대성을 주장하면서, 담론 배제의 요인들을 배제하면서 미시 담론을 힘주어 주장한다. 셋째로 데리다는 의미와 가치의 보편화와 절대화와 통일성, 그리고 전체화를 거부하고, 그것의 다양화와 상대화와 분산을 주장한다. 데리다는 의미와 가치의 통일성이나 유기체적인 전체성이나 변증법적인 발전이 아니라 그것의 해체와 흐트러짐과 분절과 산포를 주장한다. 데리다에게는 “텍스트 밖에는 아무 것도 없고”, 각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의 차연(差延)의 놀이 속에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과학 내의 여러 담론들과 인문학 내의 여러 담론들 상호 간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종족과 종족 사이에, 여성과 남성 사이에, 인간사회와 자연 사이에 차연의 놀이 밖에 없다.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를 잇는 다리는 없다는 말이다.⁴⁷⁾

이들 모두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과 미시담론들, 보편(universals)이 아니라 특수(particulars)와 다름과 차이들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네트워크와 피트너쉽과 연대성과 “차이 속에서의 연대성”이 아니라 알알이 흩어짐만을 역설하였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대주의’ 해체에 관련된 주장들의 장점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다 문화시대 혹은 다 문화의 글로벌화 시대 속에서 문화적인 전통과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타 문화들의 공동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문화적 코이노니아를 추구함으로써 ‘다 문화 공동체들로 구성된 하나의 인류 공동체’(the Community of humankind of diverse cultural communities)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 문화가 타 문화 속에 침투하는 페리코레스시스⁴⁸⁾를 추구하면서도, 하나의 문화가 타 문화들을 자기 것으로 동질화하지 않고, 다양성을 뭉개서 제3의 무엇을 만들지 않는 다양성 속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는 문화 공동체를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앞 당겨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47) 참고: 이형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경읽기』(서울: 한들 출판사, 2006), 44-45. 48-52. 52-54.

48) 희랍어의 perichoresis는 라틴어로는 circuminsessio와 circumincesso를 뜻한다. 즉, 전자는 삼위 상호간의 내주를, 다른 하나는 삼위 상호 간의 침투를 뜻하는 것으로, 삼위의 사랑의 관계성을 뜻한다. 영어로는 “coinherence”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는 동방정교회 신학이 애용하는 용어로서 그 기원은 요한복음 10:30, 38; 14:11; 17:21에 근거하고, 그것을 처음 사용한 교부는 6세기 경의 가(假) 키릴로 추정되나, 그것을 삼위일체론에 처음 정식으로 사용한 교부는 동방의 다메섹의 요한(c. 675-c. 749)이다. 그리고 일찍이 그것의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에 관련하여 사용한 교부는 역시 동방의 니짜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c. 330-c. 395)였고, 교백자 막시무스(Maximus the Confessor: c. 580-662)였다.

1996년, 살바도르 CWME의 보고서⁴⁹⁾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에 대한 WCC 선교신학의 공식적인 응답이었다. 첫째로 하나의 복음과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하는 통일성의 축과,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표현되고,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다양성의 축이야말로 살바도르 CWME의 선교적 비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살바도르는 다가오는 종말론적 새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지평 속에 있는 다(多)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복음에 의해서 이 다(多)문화가 개편될 것을 촉구한다. 둘째로 살바도르는 인종, 성, 종족, 나이 등 한 사회 안에 있는 특정 집단들에 관련된, 문화의 구조적 요소들, 즉 "정체성"의 문제를 "공동체성"의 문제와 결부시켜 논한다. 살바도르는 인종, 성, 종족, 나이로 인한 소외를 극복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동아시아적 가치(불교와 유교와 힌두교 등)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도 글로벌 공동체의 가치들과 함께 아우러지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정체성과 공동체성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주의의 sola주의와 배타주의는 오직 자신들의 정체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타 교회들과 타 종교들과 다문화 다종족과 함께 이우러져 살아야 할 신학적인 근거를 찾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대담론'을 절대화하는 점에서 '모더니즘'에 가깝다고 하는 아이러니컬한 논리를 노출시키고 있으니, '포스트모더니즘'이 '거대담론'을 해체하는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름과 다양성과 타자의 타자성'에 대하여 배워야 할 것이다.

49) *Called to One Hope - The Gospel in Diverse Cultures, Conference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zation, Salvador, Bahia, Brazil : 24 November - 3 December 1996, 12-33.*